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3년 9월 뉴스레터 vol. 68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기적

뉴스레터 나오는 날, 나는 전화를 기다린다

채비추모장례 이야기

무겁고 또 가벼워서 행복했던 용답 웰다잉

숫자로 보는 채비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 82%

채비강좌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메멘토모리

노년의 철학자가 산을 오르며 깨달은 것들

채우고 비우는 웰엔딩 체험 프로그램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교육내용 : 그림책을 함께 읽고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과 철학 갖기
대상 : 삶과 죽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
사별로 힘든 분, 애도/상실/치유에 관심이 있는 분
강사 : 임경희 (저서: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외)

2023년 9월 21일 (목) 오후 7~9시. 총무로 공간채비

수강신청



02)722-9517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CABIN.
NET

※ 본 프로그램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채비)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캐빈닷넷의 지원을 받아 진행합니다.

뉴스레터 나오는 날, 나는 전화를 기다린다



나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 사무국 차장으로 대기업에서 10여년 근무하다 육아문제로 퇴직하고, 우연한 기회에 한겨레두레를 알게 되어 2013년 입사하게 되었다. 사무국에서는 사무를 총괄하며 상담업무도 맡고 있다. 상담은 전화와 방문,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그중에서 특히 전화상담이 많은데 가입과 탈퇴, 장례 상담과 관리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조합은 매월 뉴스레터를 발행해 전 조합원에게 소식과 정보,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레터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개별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나와 사무국은 뉴스레터가 발송되는 날이면 몹시 긴장한다.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이다.

먼저 적립금 확인. 우리 조합원들은 매월 3만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뉴스레터가 발송되면 문득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물론 조합 홈페이지에서 자기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잘 모르거나 잊고 있다가 전화를 하는 것이다.

둘째, 탈퇴. 뉴스레터가 발송되면 1~2건 정도의 탈퇴 전화가 온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뉴스레터 발송하지 말까?”하는 반농담도 한다. 탈퇴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다. 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쓸 일이 없다, 형제 중에 상조 가입자가 있다, 자식이 알아서 한다고 한다는 이유와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다.

셋째, 안부 확인. 가끔 오래전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뉴스레터를 받고 전화를 한다. 별일 없냐, 잘 되냐, ○○은 아직 있냐 등등. 우리가 인적 결사체인 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다. 일반 상조회사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경우는 아주 반갑고 즐거워 한참 수다를 떨기도 한다.

탈퇴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사력을 다해 방어(?)한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혹시나 다른 상호회사에서 바가지나 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부모님을 다 여의고 나면 본인이 남는다. 언젠가 닥칠 본인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도록 설득한다. 실제로 우리 조합원 중에는 본인을 위해 조합비 납부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탈퇴를 하면 손해가 난다. 어렵게 쌓아 놓은 적금(이자는 못 드리지만)을 해지하는 것이고 조합운영비 24%를 공제하기에 손실도 발생한다. 장례를 치를 경우에는 24%를 포함하지만 탈퇴하면 공제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탈퇴 하시는 분들에게 조합에서 무이자 소액대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우리 경제가 어렵고 사는 게 참 힘들다. 형편이 어려워 탈퇴하는 분들은 참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다. 다만 그런 경우라도 불입은 중지하고 적립금은 그냥 두라고 권유한다. 또 사정을 들어보고 예외적으로 적립금은 찾아가되 매월 불입은 하라고 말씀드린다. 어려운 가운데 덜컥 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다.

나는 우리 조합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우리 조합은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저소득층 장례를 지원하고 웰엔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가족 중심의 추모형 ‘채비장례’도 실행하고 있다. 비싼 비용 들이지 않고 고인의 추모에 집중하는 채비추모장례 상담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 뉴스레터가 발송된다. 또 어떤 전화가 걸려올지 궁금하고 탈퇴할까 걱정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장례를 위한 최후의 비상금은 남겨 두셨으면 좋겠다. 장례는 언젠가, 불시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닥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합을 든든히 지켜주는 조합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김영주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무국 차장

*전체 납입금 중 운영비율을 의미하는 ‘24%의 기적’은 조합의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담은 칼럼입니다

무겁고 또 가벼워서 행복했던 용답 웰다잉



이번 주에 드디어 10주차에 걸친 웰다잉 강좌가 끝났다.

7월 5일부터 9월 5일에 걸쳐 매주 수요일마다 2달에 걸친 긴 과정이었다. 이 강좌를 의뢰한 성동구 용답노인복지관은 지역밀착형 노인복지관이다. 자치구에 거점역할을 하는 종합복지관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지만, 용답동 지역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쉽게 다가가는 사랑방 같은 곳이다. 10가지 주제로 강의를 해야 했기 때문에 내용도 많아야 했지만, 일상속에서 웰다잉을 생각하는 어르신들과 점점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인문학 중심으로 된 웰다잉강의 콘텐츠로는 잘 맞지 않았다.

생활밀착형 웰다잉 주제로 구성했다. 집 정리 전문가와 함께한 실생활에 도움되는 시니어 집 정리 프로그램, 다크 전문 감독과 함께하는 시니어 영화 재미있게 보기, 상실치유 전문가가 함께하는 시니어의 마 음돌봄, 시인 겸 웰다잉 교육전문가와 함께하는 생애사 정리, 채비플래너와 함께하는 유품정리와 생애보(조문보) 작성을 통해서 이웃들과 내 인생 나누기, 적절한 비용과 아름다운 추모식으로 준비하는 좋은 임종준비 등으로 진행했다.

프로그램도 일반 웰다잉 프로그램과는 달랐지만, 현장 강의 분위기를 더욱 달랐다.

전달 중심의 강의에 어르신들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참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아무래도 일반 전달식 강의는 지루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참여 어르신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액티브했기 때문이다. 강의는 주로 어르신들이 직접 자기 생각과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부담감을 느껴 주춤하기도 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열심히 참여하였다.

영화를 보고, 집과 유품정리를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생애를 털어 놓을 때는 많은 어르신들이 울컥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평생 가족들을 주인공으로 돌보고 주변에 서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고령의 어머니들이었다. 이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며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경험이 어르신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것 같다. 용담동에서 평생을 산 분도 있고, 30~40년 같이 산 이웃이지만 그런 인생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며 이웃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 시간에는 추모식에 불러줬으면 하는 ‘내 노래’를 한 사람씩 다 불렀다. 이미자, 나훈아, 주현미.. 그리고 최근의 임영웅, 영탁, 이찬원의 노래까지 본인의 애창곡을 부르며 자신의 인생을 떠올리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모님의 노래에는 평생의 눈물과 기쁨이 녹아 있다. 자녀들이 그 노래를 기억하면 그 마음이 잇닿을 수 있다. 추모식 상담을 하는 예비 유족들에게 나는 항상 노래를 저장하라고 부탁한다.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많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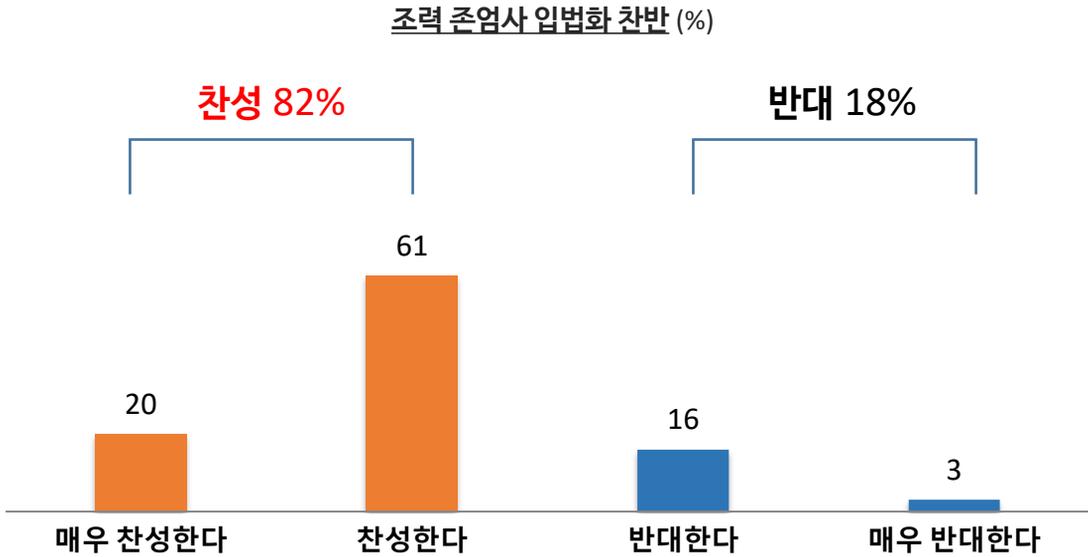
PPT보다는 유튜브를 켜놓고 함께 노래부르고 춤을 췄다. 이런 가벼운(?) 웰다잉은 처음 해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춤추고 노래하고 안아주면서 웰다잉해봐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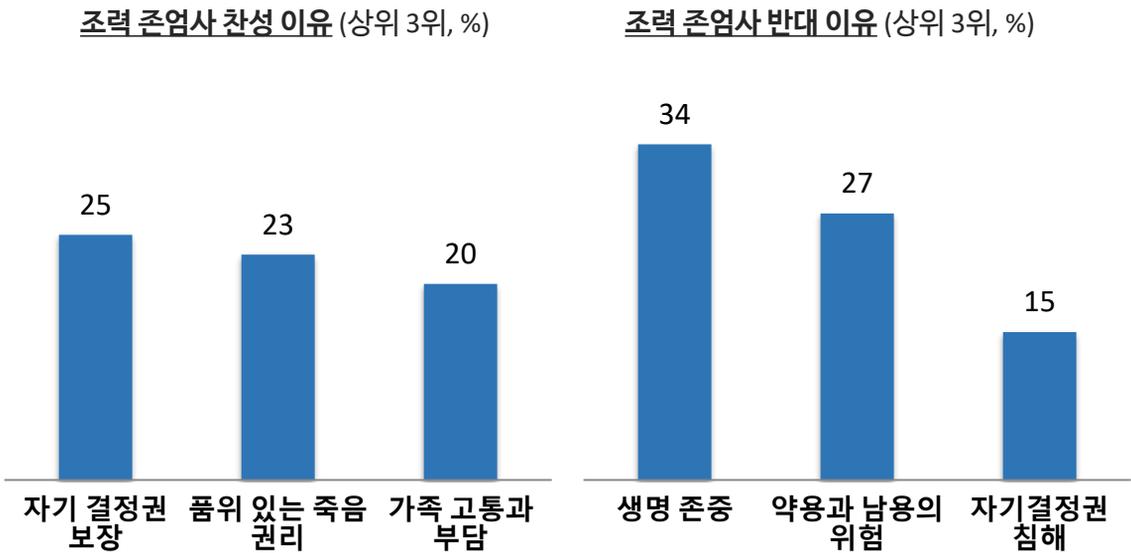
상실로 아프지만 마지막에 모든 감정을 다 나누고, 무거우면서 또 가볍게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마지막이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조금 어려웠지만 너무나 새롭고 활기찬 웰다잉이었고, 잊지 못할 경험을 우리 한겨레두레가 가지게 되었다. ✨

전승욱 | 채비장례 추모플래너

1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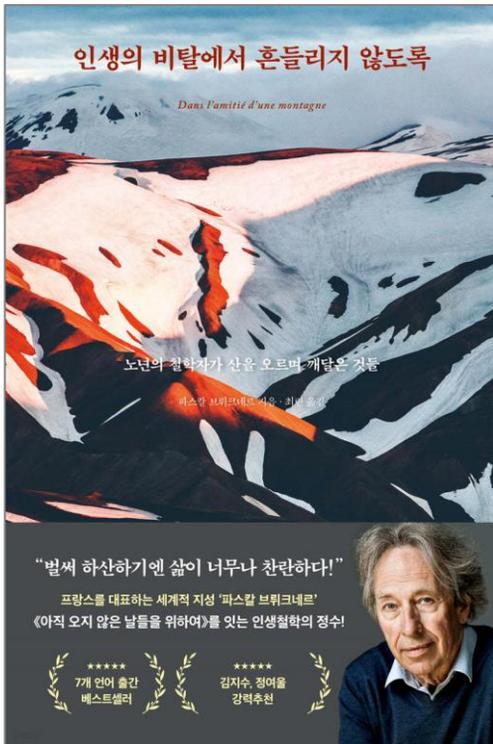
2 조력 존엄사 찬성 이유
‘자기 결정권 보장’과 ‘품위 있는 죽음 권리’로 존엄사 찬성한다!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존엄사 인식조사’ 2022.0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7.01~07.04.)

*본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표기된 값의 합이 100%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철학자가 산을 오르며 깨달은 것들



인생의 비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파스칼 브뤼크네르 | 와이즈맵

파스칼 브뤼크네르는 이미 밀란 쿤데라, 페터 비에리 등과 어깨를 견주는 살아 있는 지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에 번역되어 사랑받고 있으며, 프랑스 3대 문학상인 메디치상을 비롯해 르노도상, 몽테뉴상, 뒤메닐상 등 굵직한 수상 이력이 작품성을 뒷받침한다. 시대를 대표하는 날카로운 사상가인 그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배경이 있다면, 그것은 브뤼크네르가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산악지대를 떠나지 않은 ‘산사람’이라는 것이다. “오직 산만이 내게 육신이 있다는 느낌을 준다”라고 말하는 그는 산을 “우리 자신을 우리 너머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영혼의 공간으로 여긴다. 대체 저 높은 곳에 어떤 신비한 진리가 기다리고 있기에 80세를 앞둔 그가 비탈을 오르기를 멈추지 않는 걸까? 오직 파스칼 브뤼크네르만이 들려줄 수 있는 ‘산’과 지성의 기개 높은 대화는 그 비밀스러운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총 1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정상으로 향하는 비탈진 여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파스칼 브뤼크네르 사상이 태동하고 무르익은 공간인 ‘산’은 광활한 철학의 무대가 되어 다양한 인생의 주제들을 초대한다. ‘인간은 왜 산에 오르는가’라는 질문을 화두로 시작되는 책은 등산의 과정에 느낄 수 있는 육체와 영혼의 치유는 물론, 삶 전반에 걸친 문제들로 시야를 확장한다. 자연을 향한 인간의 도전의지와 두려움,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 한 개인이 나이듦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산속의 모든 것이 생각의 재료가 된다. 세상에 같은 모습의 산은 없고, 매 산행은 다른 감정을 일으킨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산의 풍경이 변하듯, 등반가가 지나고 있는 인생의 단계에 따라서도 산은 다른 울림을 전해준다. 노련하고 열정이 넘치는 등반가 파스칼 브뤼크네르의 발자취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가며 끝없이 흔들리지만 결국 정상을 향한다. 그런 그의 희망찬 언어와 삶을 녹여낸 『인생의 비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은 다가올 날들에 대해 불안과 기대를 모두 갖고 있는 이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줄 것이다.❀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위스टे이 입주민을 위한

공동체 속 나의 삶 돌아보기와 죽음 준비

나와 가족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현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이웃과 내 관계를 이야기하며 공동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인생을 더 즐겁게 살아갈 방법을 모색합니다. 품격있는 마무리를 위해 지난 삶을 정리해보며 현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죽음에게 말을 걸다' 다큐멘터리 감상, 공동체 속의 자신 돌아보기, 나의 삶을 통해 죽음을 바라보기와 준비

대상 : 위스टे이 별내/지축 입주민/지인, 나의 삶과 죽음 돌아보기가 필요한 분, 가치소비형 장례서비스에 관심 있는 분

비용 : 무료 (참석자에게 채비 웰다잉 노트와 다과가 제공됩니다)

문의 : 02)722-9517

위스टे이 지축

2023년 9월 14일(목)

오후 8시~10시

도서관 이음

위스टे이 별내

2023년 9월 23일(토)

오후 5시~7시

동네책방 2층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본 프로그램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채비)이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캐빈닷넷의 지원을 받아 진행합니다.

2023년 7월

우경호 조합원 빙모상
 이수중 조합원 부친상
 이상군 조합원 부친상
 흥혜령 조합원 부친상
 이현섭 조합원 부친상
 신희순 조합원 사돈상
 김연희 조합원 남매상
 윤경화 조합원 부친상
 권오숙 조합원 형부상

김소영 비조합원 시모상
 지정구 조합원 빙모상
 노세극 조합원 지인상
 윤창훈 조합원 부친상
 이서연 조합원 부친상
 권영화 조합원 모친상
 정정민 조합원 모친상
 이옥선 조합원 부친상
 심범진 조합원 부친상

박선애 조합원 부친상
 신윤섭 조합원 부친상
 김낙준 조합원 빙모상
 김익동 조합원 모친상
 김성한 조합원 부친상
 임종진 조합원 배우자상
 임도환 조합원 모친상
 황광원 조합원 지인상
 서병훈 조합원 빙부상

2023년 7월

한재연 조합원 부친상
 우진교통 류성열 모친상
 권대순 조합원 빙부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김미정 조합원 부친상

황별 조합원 부친상
 한겨레신문사 박민애 시모상
 박승정 조합원 부친상
 정미숙 조합원 모친상
 김정희 조합원 모친상

백숙희 조합원 모친상
 장창덕 조합원 모친상
 이진민 조합원 지인상
 동행 문은옥 시모상

2023년 6월

최인오 조합원 시부상
 안수영 조합원 부친상
 한재연 조합원 시모상

김동욱 조합원 배우자상
 정이환 조합원 모친상
 김진주 조합원 시모상

김선희 조합원 모친상
 홍성표 조합원 모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회적경제 온라인 상호거래 플랫폼

채비몰 오픈!

포진주고 가치있는 제품을 실용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www.coniaworld.com/handure

Q: 채비몰이 무엇인가요?

A: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 상호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Q: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A: 35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180개와 일반기업의 상품 등 총 수천 개의 상품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Q: 채비몰에서 사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채비몰은 조합원의 '관심사' 중심으로 제품을 입점시키고, 판매와 소비를 촉진 시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중에 없는 제품이거나 온라인 최저가를 지향하여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습니다.

Q: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A: 최저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몰로 운영하다 보니 회원 가입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별이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떠나기전愛



'떠나기전愛'는 채비의 **생애작별식**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생전에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작별식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생애영상, 취미 및 업적 전시/공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인사와 축복,
음식과 다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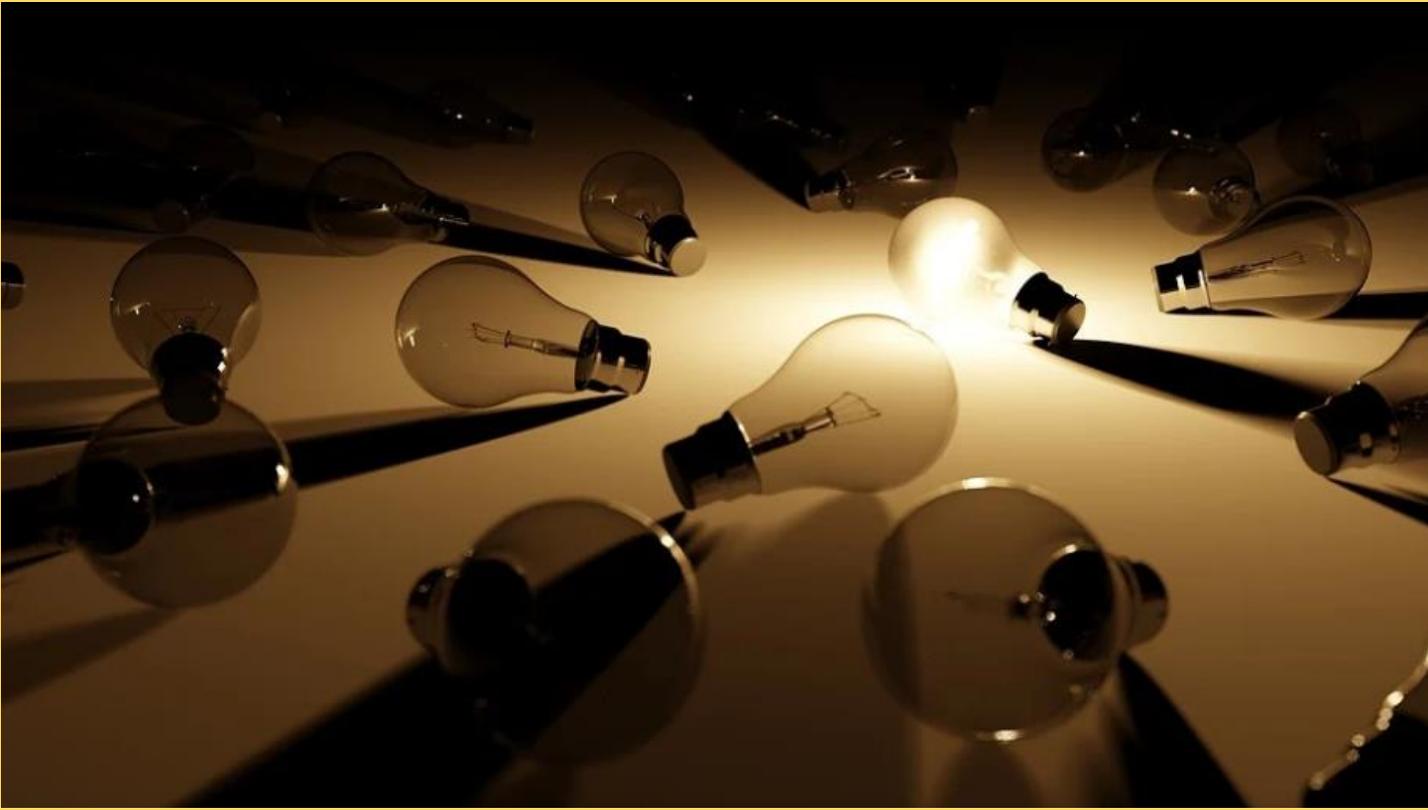
※ 프로그램은 당사자/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도보 5분)

▶ 신청 : <https://forms.gle/NKpVA2SuKCGDjKGG7>

☎ 문의/상담 : (02) 739-9517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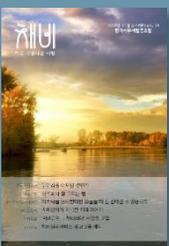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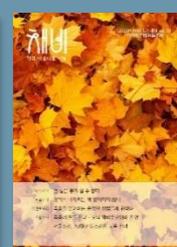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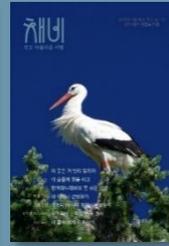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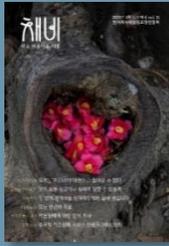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